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lf-Esteem, Healthiness of Famil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Rural Adolescents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농업연구사 양 순 미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유 영 주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IAST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Ph. D. : Yang, Soon-Mi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Yoo, Young-Ju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gree of school life adjustment in rural adolescents as well as related variables.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192 persons from 40 villages in 8 provinces were analyzed using a SAS 8.1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

- 1) The overall degree of school life adjustment was quantified as about 67 points out of a 100 possible points.
- 2)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level of adjustment were self-esteem, healthiness of family, age.
- 3) The explanatory power of such variables as sex, religion, personality, school grades, father satisfaction,

and mother satisfaction partially affected significantly in four sub-areas (teacher relation, friend relation, attitude of classwork, and rule of school areas) of adjustment.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school life for rural adolescent.

주제어(Key Words): 농촌청소년(rural adolescents), 학교생활적응(adjustment of school life), 가족건강성(healthiness of family), 자아존중감(self-esteem)

I. 문제제기

가족은 한 개인의 생애 출발점이며, 성장과정에서도 개개인의 행동형성에 영향을 미치어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게 하는 기초가 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생애발달단계로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적응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생활적응 여부는 청소년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정서적 영역의 발달 과업은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형성을 통해서 이루어 지기에(이춘재, 1988)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가족집단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청소년 비행이나 부적응 등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이 어떠한 특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 즉 그 가족의 의사결정, 의사소통, 친밀감 형성 등의 상호작용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개개인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가족이나 그렇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된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의 적응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족집단의 특성에 대해 배제한 채 청소년의 문제와 해결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본다. 특히 최근 이혼가족이 증가하고 가족구조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청

소년문제를 개인 특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 체계에 따른 유기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김유숙(1999) 등의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오윤선, 2000, 재인용).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인특성의 사회심리적인 변인들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일부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밝힌 연구들은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그리고 결손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한 연구들이거나, 역기능적 또는 기능적 가족구조를 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원에서 단순 비교 또는 단순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가족체계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과 그들의 사회현장인 학교를 동시에 연구한 논문도 매우 미진하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도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서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특성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가족체계적 특성을 함의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적용·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여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족특성 변인 즉, 가족구조의 일반/기타가족 여부¹⁾, 가족형태·가족원의 수 특성, 가족체계의 관계 상호작용의 건강성(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대처 능력 등의 개념 포함)·부모에

- 1) 부모가 생존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정상 또는 완전가족이라고 하고 편부모가족·이혼가족·재혼가족을 결손가족 또는 문제가족이라 칭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생존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일반가족으로, 편부모가족·이혼가족·재혼가족을 기타가족으로 명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대한 만족도와 개인 특성 변인 즉, 자아존중감, 성격, 의사소통 유형, 학급등수 등의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의 연구 결과는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성공적인 발달과업의 수행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²⁾의 학교생활 적응 개념

인간은 언제나 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으며 항상 개체의 모든 조건과 특성을 환경적 조건에 적합하게 조정해 가고 있다. 그 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이를 적응이라고 한다(김봉소, 1976).

여기에서는 이인정과 최해경(2001)의 인간발달 단계에 따라 청소년기를 12-22세의 연령층으로 규정하여 접근했으며, 이들은 청소년기를 다시 전기(12-18세)와 후기(18세-22세)로 구분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의 개념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장호성(1987)은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지적·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적응이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설명하였다. 또한,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노숙영(1997)은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를 규정하였다. 주현정(1998)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

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학교적응의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학교적응을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Kurdek, Fine, & Sinclair(1995)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성적, 기초 지식에 대한 성취점수, 그리고 문제행동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Dubois, Eitel, & Felner(1994)은 학업성적, 학교 출석일, 학습에 관련된 자아개념 등을 통해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였다. 김지혜(1998)는 수업 참여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도, 문제행동의 측면으로 학교적응을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개념들은 주로 과정보다는 상태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또는 전반적인 생활보다는 구체적인 생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적응의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과정적인 측면과 전반적인 생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른 하위영역을 교사관계영역, 교우관계영역, 수업태도영역, 학교규칙영역으로 구별하여 접근한다.

2.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 2) 청소년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양하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12세부터 시작하여 22세 또는 23세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14세에서의 25세까지의 부류를 말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의 제3조1항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이라 칭했다.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특성 변인과 가족특성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특성 변인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성격, 기타 일반적 성향을 나타내는 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아존중감, 성격, 청소년의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의 적응적 특성, 청소년의 문제대처양식, 학급등수 등이 해당된다(강명호, 1996; 노숙영, 1997; 오윤선, 2000; 정유진, 1999). 가족특성의 변인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의 체계적 또는 관계적인 양상과 관련되는 모든 변인들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혼상태, 일반/결손가족,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의 건강성 등이 가족특성 변인으로 간주되어왔다(박혜경, 2000; 오윤선, 2000; 정유진, 1999).

1) 개인특성 변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개인 특성 변인으로서 이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성별, 연령, 학급등수, 종교유무, 성격, 의사소통 유형이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과 건강한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러 연구 결과(안영복, 1984; 이훈진, 1999; 정유진, 1999; Allen, Hauser, Bell, & O'Conner, 1994)에 의하면 청소년의 적응행동이나 낮은 비행률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김혜경, 1999)에 의하면 일반적 적응, 교사에 대한 적응, 수업태도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교행사적응 영역, 전체적응 중에서 교사에 대한 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청소년의 전체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교우관계·수업태도·학교규칙 하위영역의 적응에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기타 다른 개인특성 변인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주현정, 1998; Forehand, Long, Brody, & Fauber, 1986; Kurdek et al., 199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희순과 김양순(1999)은 제주 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다소 높다고 하였다.

연령, 학급등수, 종교 유무에 따른 결과는 일관성 있게 보고 되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김봉소, 1976; 유윤희, 1994; Rice, 1992), 학급등수가 높을수록(양민철, 1995; 주현정, 1998)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주현정, 1998).

성격유형검사(MBTI)를 이용하여 성격과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 연구(강명호, 1996)에 의하면 성격의 외향성(E)과 내향성(I)간에는 교사관계의 학교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의사소통 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이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가족특성 변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가족변인으로는 일반/기타 가족여부, 가족형태, 가족원 수, 생활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 가족의 건강성 변인이다.

(1) 가족의 건강성

Olson의 순환모델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을 부모-자녀관계적 요인으로 규정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이혜영, 2000)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력과 의사소통과 같은 요인들이 학교규범준수, 성적과 같은 학교생활적응에서 상관을 나타낸다고 했다. 가족체계유형이 여고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오윤선,

2000)에 의하면 가족응집성의 차원에서 연결가족, 그리고 가족적응성의 차원에서 융통가족은 여고생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교과·활동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관계 상호작용적인 특성 즉 농촌가족의 건강성 정도는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기타 다른 가족특성 변인

Rice(1992)는 발달단계가 후기 청년기에 위치한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고,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적응을 잘 한다고 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더 큰 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학생이 부모와의 태도적 유사성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며, 대학에서의 적응은 특히 청년기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간에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결손가족과 일반(정상)가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비교한 연구(박혜경, 2000; 이재철, 1994)에 의하면 결손가족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기타 가족 특성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본 연구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김연주

(1996)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학생은 낮은 가족의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했다. 가족형태(핵/확대), 가족원 수 등의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본 연구에서 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그리고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농가중에서 최소한 한쪽 부모가 생존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12~22세의 농촌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일부 척도의 타당성과 변별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6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한 뒤, 관계전문가 2인이 이를 재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 8개도 15개 시·군을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하여 40개 마을을 선정한 후에, 1999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선정된 마을의 모든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N=192명)

변 인		빈 도		변 인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변인명	집단	n	%	변인명	집단	n	%
성별	남	85	44.3	평균 연령 (세)		16.26 (1.97)	
	여	107	55.7	평균 가족원 수 (명)		5.09 (1.19)	
	계	192	100	생활 수준		4.09 (1.01)	
연령	전기(12-18세)	165	85.9	가족	핵가족	101	52.6
	후기(19-22세)	27	14.1		확대가족	91	47.4
	계	192	100		계	192	100
종교유무	없다	85	45.0	일반/기타 가족	일반가족	174	90.6
	있다	104	55.0		기타가족	18	9.4
	계	189	100		계	192	100

* 결측치로 인해 변인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직접 설문·면접 조사하였다. 조사된 200호 200명의 자료중에, 192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중에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4.3%, 여학생은 55.7% 이었다. 청소년 전기는 85.9%이었고, 청소년 후기는 14.1%이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16.26세이었다. 응답자의 45%가 종교가 없었으며 나머지 55%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인이었다. 응답자의 52.6%가 핵가족에서, 응답자의 9.4%가 편부모나 재혼가족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평균 가족원 수는 5.09명이었고, 가족의 생활수준은 평균 중상을 웃도는 4.09의 수준이었다.

2. 조사도구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유윤희(1994)의 32문항 척도를 요인분석한 뒤에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1문항을 이용하였다. “나는 학교에서 터 놓고 얘기할 친구가 많다”와 같은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 -교사관계영역(8문항), 교우관계영역(7문항), 수업태도영역(8문항), 학교규칙영역(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I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 II영역은 Cronbach's $\alpha = .78$, III영역의 Cronbach's α 는 .76, 그리고 IV영역은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2) 가족의 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이란 사회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족이 지니는 건강한 성질 또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는 농촌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 Barnhill(1979), Curran(1983) 등의 척도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수정·보완한 것을 내용타당성과 구성타

당성을 검증하여 40문항으로 완성한 것으로서, 4개 하위영역 8개 개념 -의사소통·문제대응 및 가족정체감 양상 영역, 의사결정과 가족일체(유대)감 영역, 가족응통성과 사회적인 지지 영역, 가족의례창출 영역- 을 내포하고 있다(양순미, 2001). “우리가족은 각각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유지한다”와 같은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3) 자아존중감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관심의 정도나 가치 평가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척도로 Rosenberg(1965)의 10문항의 SES(self-esteem scale)를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나는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4) 기타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1) 개인특성 변인

본 연구에 이용된 자아존중감 이외의 개인특성 변인은 연령, 성별, 종교유무, 의사소통 유형, 성격, 학급등수로 연령은 출생연도를 묻는 개방형의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성별과 성격은 명목형의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성격은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차원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신의 성격구조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유형은 Hawkins, Weisberg & Ray(1980)의 4가지 의사소통 유형 분류(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재인용)에 준해 “감정노출과 언어표현을 하는 편인가 그렇지 않은 편인가”를 명목형으로 묻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다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즉 주로 언어를 표출하고 감정노출을 하는 경향이면 친숙형, 언어표현

과 감정노출을 자제하는 경향이면 차단형, 언어는 표출하나 감정노출은 자제하는 경향이면 분석형, 언어표현은 자제하나 감정노출은 하는 경향이면 억제형으로 분류하였다. 학급등수는 노숙영(1997)의 학업성취 척도를 참고로 하여 자신의 학급의 학생 수와 이번 학기의 중간고사에 따른 학급등수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그런데 조사자료가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이고 조사대상자의 소속 학급마다 구성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상 몇 등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백분율로 환산·표준화한 것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비율이 낮을수록 학급등수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종교유무는 개방형으로 종교유형을 질문한 뒤에 이를 다시 있다와 없다고 재조합하여 이용하였다.

(2) 가족특성 변인

본 연구에 이용된 농촌가족의 건강성 이외의 가족특성 변인은 가족형태, 가족원 수, 일반/기타 가족³⁾ 여부, 생활수준,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이다. 가족형태, 가족원 수, 일반/기타 가족여부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개방형으로 묻은 뒤에 재조합하여 활용한 것이다. 생활수준⁴⁾은 하하(1)에서 부부(6)까지 6점 Likert로 질문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나 만족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일문항으로된 이재철(1994)의 척도를 변형하여 작성하였다. 각각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로서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연구결과 분석

수집된 조사자료는 SAS 8.1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생활적응척도나 자아존중감 척도 중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은 역순으로 record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학교생활적응척도, 농촌가족의 건강성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이어서 조사대상자

및 학교생활적응, 농촌가족의 건강성 등의 변인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량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예비분석을 한 다음, 학교생활적응변인과 독립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하였으며 이들 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시투입식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예비분석

1) 조사대상자의 성격 및 의사소통 유형의 특성

응답자의 43.7%가 자신의 성격을 외향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6.3%는 내향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1.6%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감정노출과 언어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친숙형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 학급등수의 일반적인 특성

농촌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36.45로서 도시청소년

3) 기타가족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가족중 편모가족인 경우는 9명, 편부인 경우는 3명, 재혼가족의 형태는 6명이었다. 편부나 편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회상에 의해 기록도록 하였다.

4) 종교유무, 가족형태, 가족원 수, 일반/기타가족, 생활수준 변인은 동일기간에 함께 이루어졌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이중 종교유무, 가족형태, 가족원 수, 일반/기타가족은 완전개방형으로 작성한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생활수준은 Wame(1949)의 6계층의 지위특성 지표를 이용하여(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재인용), 6점 Likert로 측정된 것으로서 마을내에서의 상대적인 수준정도를 조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측정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성격 및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빈도분석 (N=192명)

변인		빈도	
변인명	집단	n	%
성격	외향적	83	43.7
	내향적	107	56.3
	계	190	100
의사소통 # 유형	친숙형	79	41.6
	분석형	59	31.0
	억제형	19	10.0
	차단형	33	17.4
	계	190	100

친숙형: 언어개방, 감정노출 높음 분석형: 언어개방, 감정노출 낮음 억제형: 언어폐쇄, 감정노출 높음 차단형: 언어폐쇄, 감정노출 낮음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정유진, 1999)에서 보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청소년들이 인지한 가족의 건강성은 평균 131.01로서,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양수미, 유영주, 2002)에서 부모들이 그들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평가한 것보다 더 낮았다. 농촌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아버지에 대한 만족감은 평균 3.80,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은 4.04로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⁵⁾ 학급등수는 평균 상위 35.7%수준이었다(표 3).

2. 농촌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예비분석

농촌청소년들이 인지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103.61이었다. 각 하위영역별 적응정도는 교사관계영역이 26.16, 교우관계영역이 25.71, 수업태도영역이 25.73, 학교규칙영역이 26.01로서 교우관계영역의 적응정도가 다른 영역의 적응정보다 양호하였다. 이의 결과를 유사한 척도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비교(도시: 백분위 64.8점, 농촌: 백분위 61.4점)한 연구 결과(이훈진, 1999)와 견주어 볼 때, 본 연구대상의 농촌청소년들

〈표 3〉 농촌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 학급등수 경향 (N=192명)

변인	mean	S. D.	최고값	최저값	백분위 #
자아존중감	36.45	5.82	50	23	72.9
가족의 건강도	131.01	22.97	189	66	65.6
아버지에 대한 만족감	3.80	0.95	5	1	76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	4.04	0.85	5	1	81
학급등수 (%)	35.70	21.97	98	2	-

백분위 : 평균값을 척도 점수로 나누어 0-100점 점수로 환산한 것임

〈표 4〉 농촌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경향 (N=192명)

변인	mean	S. D.	최고값	최저값	백분위 #
전 체	103.61	13.46	145	68	66.8
교사관계	26.16	4.88	40	12	65.4
교우관계	25.71	4.42	34	13	73.5
수업태도	25.73	4.84	40	12	64.3
학교규칙	26.01	4.65	38	11	65.0

이 그들 자신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4).

3.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농촌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확인한 결과 .00~.58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⁶⁾

- 5)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p < .001$ (평균: -0.23, t값: -4.43)수준에서 유의하게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 6) 일반적으로 투입된 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0.7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인호, 1983). 상관이나 회귀에 이용된 연령변인은 범주화 하지 않은 연속선상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표 5> 농촌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N=192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79***	1.00											
3	.68***	.45***	1.00										
4	.81***	.57***	.41***	1.00									
5	.58***	.22**	.13	.30***	1.00								
6	-.06	-.07	-.04	-.08	.01	1.00							
7	-.12	-.05	-.06	-.09	-.14	-.06	1.00						
8	.03	.04	-.01	.07	-.02	.11	.04	1.00					
9	.41***	.29***	.33***	.33***	.21**	.00	-.19**	.16*	1.00				
10	.33***	.22**	.22**	.25***	.32***	-.01	-.13	.07	.67***	1.00			
11	.58***	.45***	.38***	.55***	.28***	-.05	.09	.16*	.33***	.24***	1.00		
12	.58***	.45***	.37***	.44***	.41***	-.10	-.14*	.08	.49***	.43***	.52***	1.00	
13	-.21**	-.21**	-.09	-.29***	-.00	-.01	-.04	-.12	-.11	-.15*	-.26***	-.18*	1.00

1 : 학교생활적응 2 : 교사관계 3 : 교우관계 4 : 수업태도 5 : 학교규칙 6 : 가족원 수 7 : 연령 8 : 생활수준
 9 : 아버지에게 대한 만족감 10 : 어머니에게 대한 만족감 11 : 자아존중감 12 : 가족의 건강성 13 : 학교성적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들간에는 .13~.79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영역들이 비교적 높게 상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자아존중감($r=.58$)과 가족의 건강성($r=.58$)이었다. 한편 독립변인들간에 가장 높게 상관되어 있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건강성으로서 $r=.52$ 의 수준에서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었다(표 5).

이어서 농촌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적응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8~2.2수준이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2.4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의 회귀분석 모델에 의하면 전체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수정된 설명력은 46%이었다. 교사관계 영역의 설명력은 28%, 교우관계 영역의 설명력은 25%, 수업태도 영역의 설명력

은 34%, 학교규칙 영역의 설명력은 30%이었다. 전체적인 학교생활적응에는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연령 변인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중 교사관계 영역에는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했다. 교우관계 영역에는 자아존중감, 성격 변인이 그리고 수업태도 영역에는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성별, 연령 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학교규칙 영역에는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 성격,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아버지에게 대한 만족감, 연령, 종교유무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인특성 변인중에 의사소통 유형, 가족특성 변인중에 가족형태, 가족원 수, 일반/기타 가족, 생활수준은 전체적인 학교생활적응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김혜경(1999), Harter(1990: 정유진, 1999, 재인용)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은 현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인지가 긍정적이거나 만족을 느낄 때에 주변상황도 긍정적으로 인지하거나 만족하게 되며(조성욱, 1987),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을 완충하는 역

〈표 6〉 농촌청소년이 인지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회귀분석 (N=152명)

변인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	전체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B (β)	B (β)	B (β)	B (β)	B (β)
가족형태		-1.21(-.04)	0.70(.07)	-1.18(-.13)	-1.04(-.11)	0.30(.03)
가족원 수		-0.08(-.01)	0.28(.07)	-0.12(-.03)	-0.37(-.09)	0.14(.04)
일반/기타 가족		3.10(.05)	2.20(.10)	1.54(.08)	-1.03(-.05)	0.39(.02)
성별		2.98(.11)	1.00(.10)	1.06(.12)	1.47(.15)*	-0.55(-.06)
연령		-0.94(-.13)*	-0.25(-.09)	0.09(.04)	-0.38(-.15)*	-0.40(-.16)*
종교유무		-0.42(-.02)	-0.86(-.09)	-0.59(-.07)	-0.30(-.03)	1.34(.14)*
생활수준		-0.60(-.04)	-0.01(-.00)	-0.32(-.07)	-0.20(-.04)	-0.07(-.01)
의사소통유형		1.87(.07)	1.04(.10)	0.55(.06)	0.74(.08)	-0.45(-.05)
성격		0.37(.01)	0.93(.09)	1.90(.22)**	0.33(.03)	-2.79(-.30)***
아버지에 대한 만족감		-0.08(-.01)	0.01(.00)	0.71(.15)	0.48(.09)	-1.28(-.25)*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		1.80(.11)	0.04(.01)	0.25(.05)	-0.22(-.04)	1.73(.32)**
가족건강성		0.18(.29)***	0.06(.27)**	0.03(.16)	0.03(.14)	0.06(.26)**
학업성적		-0.03(-.05)	-0.02(-.10)	0.01(.04)	-0.04(-.17)*	0.02(.09)
자아존중감		1.00(.42)***	0.25(.29)**	0.20(.26)**	0.34(.40)***	0.22(.27)**
Intercept		54.38	10.99	9.99	18.52	14.89
R ² (Adj R ²)		.51(.46)	.35(.28)	.32(.25)	.40(.34)	.36(.30)
D-W 계수		2.22	2.09	2.14	2.20	1.80
F값		10.26***	5.16***	4.67***	6.55***	5.56***

가족형태 : 핵가족(1), 기타(0) 일반/기타 가족 : 일반(1), 기타(0) 성별 : 남(1), 여(0) 종교유무 : 없음(1), 있음(0)
 성격 : 외성적(1), 내성적(0) 의사소통유형 : 친숙형(1), 기타(0) b :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할을 하여 넓은 의미에서 성공적인 대처전략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일부 유사한 개념을 내포하는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가족체계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혜령, 2000; 오윤선, 2000)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가족 건강성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관계나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일반/기타가족여부, 가족형태, 가족원의 수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부모가 모두 생존하여 함께 사느냐 아니면 편부모가족이나, 핵가족이나 아니면 확대가족이나, 가족원의 수가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농촌청소년들의 교사관계·교우관계·수업태도·학교규칙준수와 같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하는 문제 즉 의사소통, 의사결정, 문제대처, 가족유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개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융통적이고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가족인가의 여부가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함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인경(1993)은 가족관계에서 청소년의 개체성은 물론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을 모두 익힐 수 있는 가족상호작용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체감 탐색과 역할수용기술 그리고 자아발달에 있어 높은 성취상태를 보였다고 했다(오윤선, 2000, 재인용). 즉 가족의 건강성은 농촌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 건강성이 r=.52의 높은 상관을 이루는 본 연구결과에서 이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건강성은 상호 높은 수준으로 연관

되어 있으면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관련변인중에 연령은 전체학교생활적응과 하위영역중에 수업태도, 학교규칙 영역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김봉소, 1976; 유윤희, 1994; Rice, 1992)와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사회에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주의와 자율성이 학교생활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독립이 기존의 규범적인 학교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연결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는 수업태도영역에서 일부 선행연구결과(현희순, 김양순, 1999)와 일치하게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는 학교규칙 하위영역에서만 종교를 갖지 않는 학생들의 적응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결과(주현정, 1998)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성격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는 교우관계영역에서 외성적인 학생들의 적응정도가 더 높았으며, 학교규칙영역에서는 내성적인 학생들의 적응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관계에서 성격의 외향성과 내향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는 강명호(1996)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는 수업태도영역에서만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적응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양민철, 1995; 주현정, 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자녀와의 관계양상이 자녀들의 성격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본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규칙영역에서만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생활에 대한 몰입이나 개입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가족생활 전반에서 가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잠재적으로 가족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는 가족 외적인 일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족생활에 몰입하거나 개입하는 정도가 낮다(양순미, 유영주, 2002).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과 양은 낮고, 엄격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낮아 이것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과 양은 아버지와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것이 곧 학교생활적응 특히 학교규칙 하위영역에 정적으로 작용하여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정도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작용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검증이 추후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사회에 이혼가족이 증가하고 가족구조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청소년문제를 개인 특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 가족체계에 따른 유기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부 가족체계에 따른 연구들이 정상/결손 가족구조나, 역기능적 또는 기능적 가족구조를 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원에서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특성의 사회심리적 변인들과 가족체계적 특성을 함의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여 농촌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몇몇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103.61 수준으로서 유사한 척도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비교한 연구결과보다 적응정도가 높았다. 하위영역중 교육관계영역은 전체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수업태도, 교사관계, 학교규칙의 적응에서는 모두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영역들의 적응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농촌청소년의 전체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특성의 자아존중감이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서 청소년의 개체성은 물론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을 모두 익힐 수 있는 가족상호작용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체감 탐색과 역할수용기술 그리고 자아발달에 있어 높은 성취상태를 보였다는 김인경(1993)의 주장이나(오윤선, 2000, 재인용),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건강성이 $r=.52$ 의 높은 상관을 이루는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아존중감 발달 이면에 작용하는 가족상호작용적 특성이 함의하는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농촌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가족의 건강성을 근간으로 하는 관점에서 접근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농촌청소년의 전체 학교생활적응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가족특성 변인인 가족의 건강성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가족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유기체적인 접근 즉, 가족의 건강성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의 적응을 도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등의 상호작용기술을 배우게 한 뒤에, 이를 통해 개개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농촌청소년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족체계는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전체 가족체계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생존하여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편부모나 재혼가족이나, 확대가족이나 핵가족이나, 가족원의 수가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가족의 생활수준이 어떠한가의 여부는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의 건강성변인만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는 가족구조적인 특성보다는 가족원들간의 유대나 의사소통, 의사결정, 개인의 독립성 및 융통성 등의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함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의 건강성 변인의외에도 성격과 같은 개인특성의 변인들이 일부 하위영역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패턴이나 관계양상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하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교육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만족감 척도가 단일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들 변인들의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일부 청소년 후기의 조사대상자들에게 청소년 전기의 조사대상자들과 동일한 학교생활적응의 척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다소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의 농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맥락에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의 정도와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 학교생활적응을 향상하는 방안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는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성공적인 발달과업의 수행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명호(1996). 가정환경과 성격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소(1976). 청년기의 가치개념, 사회적 태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주(1996). 가정환경, 학교적응,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호(1983). 회귀분석론. 서울: 비봉출판사.
- 김지혜(1998).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경(2000). 초등학교 일반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비교 연구-화순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민철(1995).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순미, 유영주(2002).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자녀청소년기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69-82.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오윤선(2000). 가족체계 유형의 청소년 적응 및 학교생활 리더십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최해경(20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 이재철(1994).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학교적응도 및 개인신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욱(1987).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희순, 김양순(1999). 청소년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1), 249-262.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 Barnhill, L. R. (1979). Healthy family system. *Family*

- Coordinator*, 28, 94-100.
- Curran, D. (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 Winston Press, Inc.
- Dubois, D.,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Forehand, R., Long, N., Brody, G. H., & Fauber, R. (1986). Home predictors of young adolescents'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 1528-1533.
- Kurdek, L. A., Fine, M.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 430-445.
- Rice, K. G.(1992).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5, 203-21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년 3월 24일 접수, 2003년 8월 21일 채택)